

장 군 님 과 C N C (3)

《이젠 마음먹었소?》

일군들은 아직까지도 CNC맛을 다 모르고있었다.
CNC가 좋다고 생각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단축하는것이 CNC화의 속도를 당기는 길이었다.
계몽단체가 있어야 했다. 이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온 나라의 CNC화의 길에서 소리없이 겪으신 위대한 력사였다.
어느 공장에 CNC기계 한대를 들여놓자고 해도 일군들과 기술자들에 대한 계몽사업이 필요했다.

한대의 CNC기계를 도입하면 또 한단계의 계몽사업에 들어가야 했다.
《련하기계》는 아직 생산대수가 많지 않았고 널리 보급되지 못하여 그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던것이다. 한대 한대마다에 우리의 첨단기술이 들어가는 소중한 재부였다.
한대 또 한대 늘어나는 우리의 CNC기계를 눈앞에 그려보시면서 련치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가슴속에서는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자하라는 의지의 선물이 울리고있었다.
2002년 7월 18일이었다.
그이께서는 이날 CNC기계를 사들여놓은 어느 한 공장을 찾으셨었다.
장군님앞에는 새로 설치된 CNC기계가 놓여있었다.
《이 설비가 CNC선반입니다. 설치한지 두달 되었는데 이제는 제품을 가공하고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개 소제를 가공하는데 4시간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CNC선반으로 하니 4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로동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절삭량도 깊게 주지 못하였습다.》
장군님께서서는 지배인의 설명에 대하여 연신 《음.》 하시면서 대답을 주려고하시었다.
《선반공들이 정말 회한해합니다. 프로그램을 짜넣은 다음에 감시만 하면 됩니다.》
수행한 일군들도 자못 흥미를 가지고 지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검사도 필요없게 되어있습니다. 100개를 가공하면 100개가 다 같은 개수로 나옵니다. 오차가 5/1000 미만이입니다.》
CNC를 알게 된 기분 소감이었다.
귀중한 자금으로 사들여온 기계였다.
지배인의 설명을 들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공장에 못해도 이런 설비 10대씩, 100대씩만 주면 될것 같은데...》라고 혼자말로 외우시

는것이였다.
《예. 10대만 있으면 소제를 투입하자마자 생산물이 쭉쭉 나올것 같습니다.》
CNC기계가 더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하는 지배인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누구에게라없이 다시 외우시었다.
《한 공장에 10대씩은 채워주어야 해.》
지배인은 한없는 경도의 정에 넘쳐 다른 기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기계는 <련하기계> 동무들이 만든것입니다.》
그 말에 장군님의 눈빛이 달라졌다.
《<련>? 이것이 <련>? 이것이?》
이렇게 되물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대단히 흥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었다.
《잘되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개발한것이 현장에서 어떤 평을 받고있는지 실지로 알고싶으신것이였다.
《예. 좋습니다. 아예 그저 그만입니다.》
그 대답이 중요했었다.
그이께서는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있다는 다른 나라의 CNC기계들과 우리의 CNC기계(기계)를 대비적으로 고찰해보시었다. 우리것이 별로 빠진데없이 훌륭하였다.
지배인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않아 주의깊게 듣고나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보시오. CNC기계도입이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결정적으로 CNC화를 해야 하오.》
이것은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새시대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는 전략적방도요.
물론 아직까지는 CNC화의 초기단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온 나라의 CNC화를 여러 단계에 걸쳐 발전시킴으로써 기계공업전반을 현대적으로 개조해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나라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우리의 CNC기계로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었다가 공장의 일군들에게 물어보시었다.
《어쩔소? 동무들도 이젠 마음먹었소?》
경에하는 장군님의 물음에 일군들 모두가 신심에 넘쳐 대답하였다.
《예. 마음먹었습니다.》

못할것이 없소. 과학기술력량을 가지고있으면 무서울것이 없단 말입니다.》
일군들은 장군님의 강령적인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있었다.
《시범을 어디에 들것인가 하는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었다.
어느 단위를 시범으로 찍으실것인가. 일군들모두가 그것을 생각하고있을 때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서계시는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였다.
《우선 이 공장부터 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CNC화를 하면 제품의 질도 높일수 있고 로력도 줄일수 있고... 이모저모로 좋은 점이 많습다.》
《예. 본때있게 해보겠습니다.》
공장의 일군들은 자기들의 공장이 선정된것이 더욱 기뻐 신심에 넘쳐 아뢰고있었다.
《허허한 오늘 본 이 공장은 마음에 듭니다. 이 사람들이 견해가 참다 한결 마음놓입니다.》
장군님의 이 말씀에 중앙의 일군들도 《예. CNC를 알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중앙의 일군들이 새로운 전망을 놓고 감격하여 술렁이는 광경을 보시면서 깊은 회억에 잠기시었다.
《그전에 우리 사람들은 CNC공작기계를 뵈히 보면서도 얼마 육십내지도 않고 희한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다.》

...그런데 최근에 고생속에서 고난의 행군을 해보고 또 정보화시대라는 사회적품이 일어나면서 현대화에도 눈이 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흘러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도 통찰적인 분석평가였다.
장군님의 명철한 말씀에 중앙의 일군들도 자기들의 소감을 터치였다.
《예. 이젠 재미들이 들었습니다. 지배인들이 이런 기계 몇대만 더 있으면 낡은 설비를 다 걷어내고 낡은 건물들은 차라리 아바트로 전환하였으면 좋겠다 고까지 말하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정말 방향을 잘 그어주셨습니다.
일군들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을 중단하시고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는것이였다.
이윽하여 본래의 감정으로 돌아서신듯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시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맛보는 단계요.》
무슨 말씀을 하실가 하여 마음을 조이던 일군들이 일시에 《예!》하고 대답을 드리였다.
맛보는 단계!
그동안 해도 막대한적 말씀이였다. 신심에 넘친 일군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일별해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다시 말씀하시었다.
《처음에는 어떻게들 생각하는가 두고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구동성으로 다 좋다는겁니다.
거기에서 뒤받침해주는것은 역시 자기들에 대한 믿음이였습니다.》
《예. 자신있다고 말합니다.》
수행한 일군들속에서 저도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였다.
《그래서 나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할수 있다는 결심을 믿습니다. ... 이것은 어차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이께서는 장군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펼쳐지고있었다.
《련하기계》개발자들이 작성한 컴퓨터 지원설계 및 공정작성프로그램과 금속절삭공구자료집이였다. 첨단으로 비약해오르는 퍼덕임소리가 금방 들리는것 같은 책들이였다.
한장 번치시던 우리의 《련하기계》가 4축, 5축에서 6축, 7축으로 비약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한장을 번치시던 8축, 9축으로 도약해오르는 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다.
한행의 프로그램을 읽어내려가시던 그것을 완성해낸 20대, 30대 청년과학자들의 미더운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기도 한행의 프로그램을 파고들어보시나면 최첨단기계의 모의설계를 하고있는 기술집단의 얼굴들이 눈앞에 떠오르였다.
1980년대에 그들은 로보트를 만들어본적이였다.
그들이 만들어낸 소제운반로보트는 기특한 발명품이였다. 그때 전시장의 한쪽에서 조용히 서서 동작을 수행하고있는 로보트를 보시면서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기쁨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수자식공작기계생산을 늘일대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목표를 날아안은 로보트개발자들의 기세는 충천하였다.
그들은 로보트성공에 기초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수준에 있는 CNC공작기계를 만들어낼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이런 우수한 두뇌진로를 1992년에 《련하기계》개발집단을 꾸어주시였다.
사람들은 흔히 수제형들을 책상이나 실험실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편상하고있다. 하지만 오늘날 인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단순히 책상이나 실험실의자가 아니다. 지식경제시대는 지식의 활용범위를 대

단히 넓히고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종합적리용을 전제로 하는 오늘 최첨단기술이 책상우에 머물러 있을새가 없으며 그자체가 경제활동에 즉시적으로 참가하는 시대이다.
지식경제시대는 에디슨과 같은 개인이 중대한 발명을 하고 그것이 과학기술발전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던 이전시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해당 분야의 1번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집단이 있어야 하며 집단의 위력에 의해서만 성과를 낼수 있게 되어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시대를 내다보시고 나라의 인재들을 키우며 내세워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련하기계》를 처음으로 보여주신 그날에 장군님께서서는 병사의 정신으로 첨단을 정복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평범한 연구사를 련하기계관리국 책임일군으로 임명 해주시였다.
이것은 CNC기술개발사업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최상의 성과를 낼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조치였다.
그이의 휘하에는 1번수들이 많다.
아직은 력사가 많수 없는 그 1번수들은 경에하는 장군님의 영도밑에 첨단을 돌파하는 영광스러운 강령군길에 걸고있었다.
당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걸음마다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는 1번수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그이께서는 그들이 집필한 논문들과 도서 자료들을 보여주시는데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는데것이였다. 그것이 혁명하는 락이요 보람이였다.
훌륭한 자료들이였다. 시대를 주름잡는 착상들이였다.
그이께서는 1번수들이 작성한 자료책의 마지막장을 덮으시면서 지시를 내리시였다. 《감사를 끝냈!》

먼저 컴퓨터교육을

현장을 돌아보는 장군님께 공장의 당비서가 말씀드리였다.
《이번에 CNC기계가 들어왔는데 저저마다 하겠다고 청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졸업생으로서 머리가 도는 사람부터 시켜보았는데 누구나 빨리 리해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컴퓨터종공들을 공장에서 자체로 양성하는가 아니면 어디서 받아오는지 하는것을 알아보시었다.
자체로 양성하고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자체로 양성하고있소?》하고 물으시었다. 기대가 담긴 물음들이였다.

《예. 공장에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가 있습니다. 로동자들이 이 교육체제에서 일반교육을 받고 나오기때문에 지장이 없게 빨리 배웁니다. CNC기계운전기능은 한달이면 다 익힙니다.》
당비서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훌쩍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리고 CNC도입으로 전에 없이 환해진 현장을 다시금 둘러보시었다.
별채부터 전망이 눈앞에 보이시였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시 말씀하시었다.
《컴퓨터교육을 해야 합니다. 기초가 없이는 안됩니다. CNC기대를 다룰수 있게 기초교육을 선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었다가 공장의 일군들에게 물어보시었다.
《어쩔소? 동무들도 이젠 마음먹었소?》
경에하는 장군님의 물음에 일군들 모두가 신심에 넘쳐 대답하였다.
《예. 마음먹었습니다.》

《장군님, 이 설비가 출발전가공반입니다. 련하기계관리국에서 만든것입니다.》
우리 동무들이 아직 처음이어서 복잡한 제품들을 가공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복잡한 제품도 가공하겠습니다.》
《련하기계》를 다른 공장에서도 보았습다. 그만큼 편리하오. 우리 것으로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는 신심이 생깁니다.》

2002년 5월 18일이었다.
어느 한 기계공장을 돌아보시는 장군님의 운몽에는 회억의 파도가 밀려오고있었다. 것처럼 심혈을 기울여 이끌어 오신 현대화의 새로운 화폭이 드러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였었다.
그날 공장일군들과 경에하는 장군님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고갔다.
《위대한 장군님, 현대화된 다음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잊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시여 정말 고맙습니다.》
《그야 응당한것이지. 지난해보다 평창이 멋있어졌소.》
《우리 공장이 현대화에선 제일 락후했 습니다. 솔직히 장군님께서 지난해에 평가하시지 않았습니까.》
CNC를 도입한 후부터 제품이 모두 다 판용출처럼 떼쳐 나옵니다. 10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똑같습니다.
이제 로동자들과 담화해보았습니다. 제품을 몇개 쥐었고 오작품이 몇개 나왔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무는 150개 쥐었는데 오작 한개도 없었고 말하였고 저 동무도 80개 쥐었는데 오작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무는 60개 쥐었는데 프로그램을 다치다나니 그사이에 딱 한개가 오작 나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내 오늘 동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로동자한테는 무시마치와 주먹밖에 없다는 소리가 이젠 맞소, 안맞소?》
이렇게 물음을 제기하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로동자들의 로동도구가 달라졌습다.》

로동도구

이전에는 로동자가 직접 불질생산을 하였지만 지금은 로동자가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생산하고있습니다. 로동자들이 짠 프로그램에 따라 CNC기대가 불질생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간격을 두시었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기름뿜은 웃을 입어아 도 몇개급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복을 입고 우리청으로 들어 다보면서 기계를 조종하고있습다.》
그리니 이제는 로동자들의 기술수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있단 말입니다.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컴퓨터 도입출력을 위해서도 학교들에 컴퓨터를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공장대학에도 컴퓨터를 한 20대씩 주어 거기에서 기능공들을 양성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대군인들에게 갑자기 프로그램을 짜내라고 하면 트럭모르운전수들에게 시대에걸어서 승용차를 몰라고 하는것이 나 같습니다. 네거리도 모르고 고속으로 법다 몰다가 사고칠것이 아닙니까.》
《하하하...》
위대한 장군님과 전사들사이의 즐거운 회포의 웃음이었다.
《나는 오늘 정말 훌륭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제는 정보화시대에 확고히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고있습다.
첨단으로 나가는 조선의 발걸음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는 환희에 넘친 대화였다.
(다음호에 계속)

분 초 로 라 투 며

이렇게는 물론 앞으로 졸업출시였다. 미래에 내다보며 내있으신 큰결음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시였다.
맛보는 단계로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실천단계로 넘어가야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에하는 장군님과 해당 부문 책임일군들사이에는 CNC화방향을 놓고 쉬임없는 진화가 오고갔으며 중대한 결론들이 내려졌다.
CNC화의 초기진척과정이 어떻게 흘러 갔는가를 말해주는 단편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있다.

2003년 7월 5일
이날 어느 한 기계공장을 찾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설비들의 정밀도가 떨어지고 정밀부속가공에서 애로가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남다른 힘으로 CNC화의 대렬에 들어서지 못한 자책감으로 모대기는 공장의 지배인에게 이렇게 충고하시였다.
《기계가 정말좋아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재간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기능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CNC공작기계생산을 저야 한단 말입니다. 그 방향에서 안을 다산하여 빨리 나에게 보고하십시오.》

2003년 12월 10일
이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느 한 중앙의 일군에게 전화를 거시였다. 장군님과 일군사이에서 이런 짧은 대화가 오고갔다.
《C 공장설비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장군님, 그 공장지배인이 공장의 자금으로 CNC화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공장이 언제 돈을 벌어 꾸리겠습니까. 투자를 해줍다.》
나라의 CNC화를 위한 장군님의 영도는 분과 초를 다루며 이렇게 흘러가고있었다.

이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중앙의 한 일군에게 말씀하시였다.
《...C 공장에서 생산종합지휘실을 만들어놓았는데 생산지휘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그 공장을 돌아보면서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러다 공장일군들이 공장을 꾸리라고 수고를 많이 하였기때문에 그만큼 좋았다는데 그것은 못나 부리는것입니다. CNC화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맛 보는 단계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현장에서 일군들과 토론중에 계시였다.
《CNC화를 하라고 하니 저마다 하겠다고 나서는데 평균주의를 해가지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투자를 집중하여

시범단위, 본보기단위를 정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게 하자는것입니다.
역시 시범단위, 모범단위를 창조해야 합니다.
몇몇이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몇몇이로 만들어서 본때있게 해봅시다.》

2003년 2월 4일
이날 경에하는 장군님과 어느 한 도당책 임일군사이에는 이런 전화대화가 오고갔다.
《경에하는 장군님, CNC선착가공중심반과 CNC수직가공중심반들을 설치하였는데 잘됩니다.》
《성공하였으면 좋습다. 그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나갑시다.》

2003년 7월 3일
이날 어느 한 기계공장의 출발전가공반 앞에서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공장의 지배인과 이런 대화를 나누시였다.

푸른 숲 설레이는 조국산천에 어린 송고한 뜻

봄빛이 질어가는 조국 땅 그 어디에서나 나무심기가 한창이다.
이 계절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푸른 숲 우거진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끝없이 이어오신 절세의 위인들의 거룩한 자취를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림을 잘 조성하고 보호관리 하여야 산림자원을 끊임없이 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토지를 보호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할수 있습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처음으로 맞이 한 푸른 봄날에 백두산인민들끼리 숲소 모란봉에 오르신것은 력사의 그날은 토지개혁법발포를 며칠 앞둔 주체 35 (1946)년 3월 2일이었다.
철성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란봉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안락은 어두우시였다.
에로부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면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고 수림이 울창하여 명산으로 알려진 모란봉이 일제의 야만적인 통치로 여지없이 황폐화되었던것이다.
상징적인 모란봉의 꽃을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전에는 모란봉에 나무가 많았다고,

왜놈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모란봉의 나무를 만벌하였다고 분격에 넘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곁을 을 옮기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앞으로 모란봉에 나무가 많이 심고 꽃들도 많이 심어야 한다고, 모란봉을 공원으로 잘 꾸려 평양시민들의 훌륭한 문화휴식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가치귀여진 나무 한그루를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못내 아쉬워하시며 모란봉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것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마음대로 다치지 말아야 한다고, 모란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 풍치구경을 오겠는데 오는 사람마다 나무가지를 꺾고 꽃을 꺾으면 남는것은 유적과 산밖에 없을것이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된 오늘에는 우리 나라의 명승지들이 모두 인민의것으로 되겠다고 하시며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른 숲으로 바꾸기 위한 현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그때로부터 한해가 지난 주체 36 (1947)년 4월 6일 문수봉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푸른 숲 우거져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면별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시며 몸소 나무를 심으시

었다. 조국땅에 뿌리내릴 나무를 심으시며 하늘같이 환해지도록 햇빛같은 미소를 지으신 어버이수령님.
정령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는 그대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나라의 귀중한 재부였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불비 쏟아지는 가뭄한 전회의 그날에도 조국땅우에 활짝 꽃피우고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모란봉에 송고한 자취를 새기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잊지 못할 3월 2일 을 식수절로 제정하도록 하시였다.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나라의 산림문제를 두고 그리도 마음쓰며 조국산천을 더욱 푸르게 하기 위해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신철과 로고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랴.
이느헤인가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오중총 7번째 청호를 수여받은 한 인민군부대를 시찰할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의 애국심이 깃든 산림조성전망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며 나무심기정형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그리시고는 부대에서 양묘장을 전담성기게 꾸리고 군인들과 가족들이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몇해사이 구내와 주변의 수림화를

훌륭히 실현한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무심기가 한창인 귀산에 오르시여 군인들과 함께 몸소 식수를 하시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은 조국의 부강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무심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국토와 풍만한 자원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선군혁명명도의 길에서 푸른 숲 설레이는 산과 들을 보실 때면 더없이 기뻐하시며 거기에 깨끗한 량심과 맘을 바쳐온 사람들의 뜨거운 애국심이 숨은 노력에 대하여 누구보다 먼저 헤아려주시는분인 우리의 경에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을 조국의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사업으로 내세우고 계시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뜻에 떠받들려 오늘 조국강산은 날을 따라 더욱 훌륭히 변모되어가고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송고한 넋원을 현실 속에 꽃피워가시는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조국의 산과 들은 더더욱 푸르려 설레이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용 진



푸른 숲 우거진 모란봉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조국애를 깊이 새기고있다. —모란봉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당, 행정배합에서의 실력문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기술지식이 없으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직지도를 바로 할수 없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2중3대혁명붉은기 문천식로공장을 찾는 사람들은 공장의 전변된 모습에서 누구나 부러움을 금치 못해한다. 마음먹은대로 갖가지 식료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현대화된 생산공장과 모든 건물들의 문화적모습, 덕을 보는 종합적인 축산기지와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

선진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러진 공장의 전경앞에서 사람들은 쉬이 눈길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그보다도 사람들이 갖는 인상을 세겨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공장일군들의 당, 행정배합이다.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면 초급당비서 리일선동무는 진정성있게 우리의 지배인이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알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등을 떠민다. 지배인 정령동무역시 공장이 이룩한 성과속에는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되어 일군들을 기술혁명수행에 힘있게 떠밀어준 초급당비서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고, 그런 일군이 당이 바라는 진재배기당일군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서로 오가는 이런 뜨거운 정성의 기초는 무엇인가.

문천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그것을 우리는 취재과정에 잘 알수 있었다.

언제인가 공장에서 파자생산공정과 용유유생산공정을 새롭게 꾸렸을 때였다.

해당 공정을 컴퓨터로 조종하여 제품의 질을 훨씬 개선할수 있게 된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누구나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지방공업공장의 수준에서 그만하면 괜찮다는 자부심이 완연히 엿보였다.

그런데 더 큰 오성을 제기하는 일군이 있었다. 그날 저녁 열린 일군들의 회의에서 지배인 정령동무가 보다 높은 현대화의 목표를 내놓았던 것이다. 공장에 중앙조종실을 새롭게 꾸리고 모든 생산공정을 컴퓨터로 조종할수 있게 하자는 제기였다.

일부 일군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지역의 현존 기술력만으로는 그 어떤 기술혁신을 해낼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엇갈린 주장들이 오갔다. 그날 회의에 참가했던 초급당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현대화의 높은 목표는 한 일군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요구, 당의 요구이다. 그런데 우리 일군들이 최첨단과정에 뛰어들지 못하고 주저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이를 통해 초급당일군이 심각히 분석해본 문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일군들의 실력문제였다.

일군들의 실력제고, 바로 이것이다.

언제인가 용유유생산공정에서 품질관리가 증가공급을 조절할수 있는 전자변질기공제를 놓고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리게 되었다. 번을 한계 설치하였는가, 여가 설치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시작된 토론은 격렬하였다. 일부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조건을 타산하며 번을 하나만 설치해도 탕크의 증기온도를 얼마든지 조절할수 있다는 타당성을 내세웠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강했는지 번을 3개 설치해야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던 지배인까지도 머리를 긁적거리게 되었다.

그날 저녁 지배인의 방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들었다. 「지배인동무, 뭘 주저하십니까. 앞에서 구멍을 치며 나가십시오. 뒤에서 힘껏 밀어주세요...」 초급당일군의 말이였다. 뒤늦게야 지배인은 초급당일군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와 같은 기술적견해를 세우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지배인의 심정이 어땠었는지, 이 일이 언제는 때로 바로 초급당일군과 지배인은 더욱 자주 만나 토론하고 서로 도와주고 방조받으면서 한마음한뜻이 되어 공장을 이끌어나갔다.

지배인의 착상과 구상은 언제나 당 조직의 지지와 방조속에 제대로 실현이 되고있고 그런 사업성과속에서 행정일군의

일군들의 실력제고, 바로 이것이다. 언제인가 용유유생산공정에서 품질관리가 증가공급을 조절할수 있는 전자변질기공제를 놓고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리게 되었다. 번을 한계 설치하였는가, 여가 설치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시작된 토론은 격렬하였다. 일부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조건을 타산하며 번을 하나만 설치해도 탕크의 증기온도를 얼마든지 조절할수 있다는 타당성을 내세웠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강했는지 번을 3개 설치해야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던 지배인까지도 머리를 긁적거리게 되었다.

그날 저녁 지배인의 방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들었다. 「지배인동무, 뭘 주저하십니까. 앞에서 구멍을 치며 나가십시오. 뒤에서 힘껏 밀어주세요...」 초급당일군의 말이였다. 뒤늦게야 지배인은 초급당일군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와 같은 기술적견해를 세우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지배인의 심정이 어땠었는지, 이 일이 언제는 때로 바로 초급당일군과 지배인은 더욱 자주 만나 토론하고 서로 도와주고 방조받으면서 한마음한뜻이 되어 공장을 이끌어나갔다.

지배인의 착상과 구상은 언제나 당 조직의 지지와 방조속에 제대로 실현이 되고있고 그런 사업성과속에서 행정일군의

일군들의 실력제고, 바로 이것이다. 언제인가 용유유생산공정에서 품질관리가 증가공급을 조절할수 있는 전자변질기공제를 놓고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리게 되었다. 번을 한계 설치하였는가, 여가 설치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시작된 토론은 격렬하였다. 일부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조건을 타산하며 번을 하나만 설치해도 탕크의 증기온도를 얼마든지 조절할수 있다는 타당성을 내세웠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강했는지 번을 3개 설치해야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던 지배인까지도 머리를 긁적거리게 되었다.

김철의 신념과 본때로 승리의 돌파구를

백두산위업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골지의 쇄동생산기지는 불광산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광산의 그 어느 전투장에서나 올해공공시설을 만들고 인민생활고조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쇄동생산을 위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광부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금속공업부문의 로동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실감없이 새기고 불굴의 결심력을 발휘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지난 1월 공공시설을 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광산의 일군들은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 로동당사회의 자랑찬 창조물인 대형장거리벨트크레인이 한창 건설중이다. 대중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사상관념, 일본에서도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 3대혁명붉은기정취운동결의목표가 훌륭히 수행되고있다. 그 과정에서 공장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26호보범기대영예상공장, 모범체육공장으로 되었으며 얼마전에는 2중3대혁명붉은기를 정취하는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당일군들이 높은 실력을 겸비하고 행정경제사업을 적극 떠맡아줄 때 당, 행정배합이 잘되어 공장의 기술혁명적목표수행에서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백두산위업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골지의 쇄동생산기지는 불광산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광산의 그 어느 전투장에서나 올해공공시설을 만들고 인민생활고조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쇄동생산을 위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광부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금속공업부문의 로동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실감없이 새기고 불굴의 결심력을 발휘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지난 1월 공공시설을 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광산의 일군들은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 로동당사회의 자랑찬 창조물인 대형장거리벨트크레인이 한창 건설중이다. 대중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사상관념, 일본에서도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 3대혁명붉은기정취운동결의목표가 훌륭히 수행되고있다. 그 과정에서 공장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26호보범기대영예상공장, 모범체육공장으로 되었으며 얼마전에는 2중3대혁명붉은기를 정취하는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당일군들이 높은 실력을 겸비하고 행정경제사업을 적극 떠맡아줄 때 당, 행정배합이 잘되어 공장의 기술혁명적목표수행에서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

평양시에서

평양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철전선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지난 4일 평양시에서는 수백대에 달하는 파철을 자동차들이 가득 싣고 철강재증산투쟁으로 뚫고있는 철리마제강련합기업소 집중수송하였다.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자!」「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자!」 등의 힘있는 글방들을 적재차량에 붙이고 붉은 기발을 휘날리며 분선으로 향하는 자동차행렬은 강성대국의 령마투쟁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역센 기상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철강재생산을 늘이자면 파철모르는 사업을 전근조절,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제철, 제강소들에 파철을 많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평양시의 일군들은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철전선 지원사업에 높은 애국적열정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그러하여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강철전선지원 열의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으며 올해에 들어와 철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매달 많은 량의 파철을 보내주고있다.

이런 집중수송에서는 대동강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서성구역, 모란봉구역, 대성구역, 락랑구역, 신교구역, 중앙정보보안구역, 창광원이 모범을 보였었다.

대동강구역, 중구역, 서성구역의 일군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을 파철모으기 사업에 적극 불러일으켰으며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총화회와 평가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공민적자각을 안고 파철원천탐사를 위한 사업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 건설장을 비롯하여 여러곳에서 많은 파철원천을 찾아내었다.

만경대구역, 평천구역, 신교구역의 일군들은 산하단위들이 나가 설비계기사업을 대담하게 내밀어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파철을 모아들이었으며 평양방직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도 내부에비해 탐구원천하여 파철원천을 적극 찾아내었다.

중구역, 락랑구역, 대동강구역의 일군들은 수송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 모아놓은 파철을 제때에 강선으로 보내주었다.

부강조각건설에 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열의를 안고 강철전선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고있는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성의에 무한히 고무된 강선의 로동계급은 기세충천하여 철강재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욱

1.4분기 산지통나무생산계획 완수

백암갱목생산사업소에서

올해공공시설의 전후적사업 관점에서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백암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4분기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사업소의 일군들은 전투계획을 면밀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생산조직과 조화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또한 작업소와 소대들간의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생산자대중의 양양된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한편 현지에 내려가 자동차, 트랙터, 리프트기 등을 비롯한 물건기계의 수리 정비작업을 도와주어 만가동시도록 하였다.

사업소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높이 세운 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열의를 넘쳐 남았다. 힘찬 투쟁을 벌리었다. 통나무생산에서는 양목작업소의 로동자들이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통나무생산사업자 골석련생산이라는 자각을 안고 이들은 림지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대중적열의를 높이 발휘하여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도내림소에서는 림철검포수와 침목교체, 자갈갈기 등 절필 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통나무수송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림철기판사들은 기관차의 지점지수를 신속하게 하여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통나무수송률과 성과적으로 성과를 올렸다. 혁신의 불길은 신진, 합숙작업소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이곳 작업소들의 로동자들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통나무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1.4분기생산목표를 초과한 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더 많은 통나무를 탄전으로 보내주기 위한 전투를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은틀광산 일군들과 로동계급

없이 승연한 강점에 힘써 마음속결의를 가다듬으며 현장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년초부터 광산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광부들속에 들어가 올해 쇄동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화선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광산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제품, 운반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도록 림틈없는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재갈이 늘어 나는데 맞고 노력을 합력적으로 배치하고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도 면밀히 짜고들었다.

「우리가 한의 쇄동이라도 더 생산하여 금속공장에 보내주어야 인민생활고조의 불길에 더욱 세차게 타올라수 있다.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간다.」

광부와 직장, 대대들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화선정치사업을 벌리는 일군들의 열연 호소는 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중산광우에 공격적인 기상이 세차게 나타졌다. 광우에서는 침수현을 복구하는 동시에 쇄동생산을 계속 내밀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일군들은 물론 로동자들도 많은 일을 끝내기 전에는 전투장소를 떠날수 없다고 단정하여 결사전을 벌리었다. 줄진대에서의 투원들이 파쇄비와 공전작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때 채광중대의 전투원들은 버려진작업장과 쇄동생산에서 적진전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의 초소를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전진으로 생각하며 파감한 공격전을 벌리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광우에서는 식달이 걸려야

한다면 당장부작업을 보름동안에 끝내고 1월 쇄동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청년광우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김철청년돌격대원들은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피복하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파감히 뚫고나가면서 골전을 앞세우고 앞선 채광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2배로 넘쳐 수행하였다.

광산에서의 지금 훌륭하게 건설된 대형현양시설이 온내내 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답게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쇄동생산을 위한 파감한 공격전을 벌리었고는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생산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선숙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농업생산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이 땅위에 풍요한 가을을

지상연관

얼마전 농사차비로 들끓는 현지에서 지상연단을 조직하기 위해 취재길을 이어나가던 우리는 정주시 석산협동농장에서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을 만났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보다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수백정보 더 늘이고 총 100정도의 새땅을 찾아내어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는 전망을 마련하였습시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시에서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늘이고 많은 새땅을 찾는 문제를 놓고 취재를 심화시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생활문제를 풀자면 농사를 잘 지어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더욱 늘인것을 보면 주목되는 점들이 있었다.

시에는 논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병방지대 농장들이 있는가 하면 논농사도 하고 밭농사도 하는 중간지대 농장도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앞그루감자농사와 새땅예비

정주시에서

밭농사가 기본인 산간지대 농장도 있었다. 주목되는것은 논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병방지대 농장들에서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늘인것이었다.

병방지대 농장들의 포전은 대체로 습기가 많은것이 특징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안의 병방지대 농장들에서는 제한된 논에서만 앞그루감자농사를 하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병방지대 농장들에서도 논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늘였다.

일협협동농장만 보더라도 올해 논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더 늘였는데 그 전망이 담보되었다.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감자를 심을 논벼포전에서 두둑을 높이 지으면서 도랑을 깊이 내면 습기에 의한 피해를 막을수 있다는것이다. 심분 리해되는 특이였다.

복합형농장을 비롯한 다른 병방지대 농장들에서도 이 방법을

새땅예비

받아들이 논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늘였다.

중간지대, 산간지대 농장들에서도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늘였다. 시에서는 석산협동농장에서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늘인 경험을 모든 농장들에 일반화하였다.

이 농장에서는 논앞그루감자농사면적은 물론 밭앞그루감자농사면적도 늘였다. 이 농장의 포전들의 차이는 있지만 부침땅의 지력이 높은 포전들이 있는가 하면 낮은 포전들도 있다. 또한 가을을 적게 타는 포전들이 있는가 하면 많이 타는 포전들도 있다. 농장들은 포전들의 특성에 맞게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늘였다. 이때 농장일군들이 잘한것은 가을을 타는 포전들에 필요한 판수대책을 세우고 앞그루감자농사적으로 정한것이었다.

시일군들은 이 농장의 경험을

들에서도 포전마다 짙은 거름을 많이 실어내어 부침땅의 지력을 높였더니 이렇게 자랑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정평군 부평협동농장 리양일군인 윤상철동무는 농장에서 당면한 영농과업수행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잘 조직하여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비약히 높이고 있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가 더욱더 소식을 의뢰한 농장에는 당면한 영농전투를 위한 사회주의경쟁도표판이 있다고 한다. 작업반별 당면한 영농과업수행정형이 붉은 줄로 표시

새땅예비

오산, 침향, 톱포형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농장들에 일반화하였다.

이와 함께 앞그루감자포전들이 짙은 거름을 많이 내어 부침땅의 지력을 더욱 높이고 파적이 있는 점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이도록 하였다.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더욱 높이기 위한 뒷바라지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시에서는 올해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지난해보다 수백정보나 더 늘여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시에서 올해 100정도의 새땅을 더 찾아내어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전망을 마련한것도 자랑할만 한것이였다.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올해 알곡작물을 더 심기로 한 땅들을 보면 보장할 수 있는것이였다. 락포장마당과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기수가 될 때

가까이 생각이 깊어진다.

공공시설에는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성과여부는 지휘성원들, 일군들에게 달려있다고 지적되어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당정책을 지지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뛰어넘어가는 실천가, 당에서 준 과업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성실하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어야 우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강산에 차넘치고 온 나라가 흥성거릴 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슨 일이나 그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사상적각도와 사업정도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도안의 농장들은 당의 위대한 농촌건설사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는 본보기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알곡정도가 수확량을 높이기 위하여 논이 위대한 맹렬한 투쟁으로 높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일군들이 서야 할 위치는 들끓는 포전

농사차비에 힘을 넣었다.

우리 농장의 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들에서 필지별토양분석조에 기초하여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짙은 거름원천을 찾아내어 유기질비료를 지닌데보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우리 농장일군들의 위치는 언제나 농사차비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포전들이다. 녀초부터 농장의 모든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은 늘 포전에 나가 농장원

들과 함께 일하면서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농장에서 올해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 때에도 일군들은 농장원들속에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때에도 일군들이 농업부문의 연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었다. 그리고 선진영농방법들을 작업반장, 당세포비서, 작업반기술원, 분조장들에게 정상적으로 보급하였다.

또한 필지별로 따라 품종을 바로 배치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도 신속하게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 당면한 영농전투를 본매있게 벌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되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기간에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본보기농장들을 따라잡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올해 농업생산을 혁신을 창조하도록 농장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황주군 포남리당비서 서진화

각지에서 들어온 소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열광스러운 투쟁전열을 계속하여 전체 인민들을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영웅적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공시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올해농사차비를 잘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 단위를 이룩한 성과자료들을 계속 보내오고있다.

농사차비에 힘을 넣었다.

우리 농장의 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들에서 필지별토양분석조에 기초하여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짙은 거름원천을 찾아내어 유기질비료를 지닌데보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우리 농장일군들의 위치는 언제나 농사차비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포전들이다. 녀초부터 농장의 모든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은 늘 포전에 나가 농장원

들과 함께 일하면서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농장에서 올해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 때에도 일군들은 농장원들속에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때에도 일군들이 농업부문의 연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었다. 그리고 선진영농방법들을 작업반장, 당세포비서, 작업반기술원, 분조장들에게 정상적으로 보급하였다.

농사차비에 힘을 넣었다.

우리 농장의 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들에서 필지별토양분석조에 기초하여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짙은 거름원천을 찾아내어 유기질비료를 지닌데보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우리 농장일군들의 위치는 언제나 농사차비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포전들이다. 녀초부터 농장의 모든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은 늘 포전에 나가 농장원

들과 함께 일하면서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농장에서 올해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 때에도 일군들은 농장원들속에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때에도 일군들이 농업부문의 연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었다. 그리고 선진영농방법들을 작업반장, 당세포비서, 작업반기술원, 분조장들에게 정상적으로 보급하였다.

농사차비에 힘을 넣었다.

우리 농장의 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들에서 필지별토양분석조에 기초하여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짙은 거름원천을 찾아내어 유기질비료를 지닌데보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우리 농장일군들의 위치는 언제나 농사차비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포전들이다. 녀초부터 농장의 모든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은 늘 포전에 나가 농장원

들과 함께 일하면서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농장에서 올해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 때에도 일군들은 농장원들속에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때에도 일군들이 농업부문의 연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었다. 그리고 선진영농방법들을 작업반장, 당세포비서, 작업반기술원, 분조장들에게 정상적으로 보급하였다.

농사차비에 힘을 넣었다.

우리 농장의 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들에서 필지별토양분석조에 기초하여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짙은 거름원천을 찾아내어 유기질비료를 지닌데보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우리 농장일군들의 위치는 언제나 농사차비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포전들이다. 녀초부터 농장의 모든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은 늘 포전에 나가 농장원

들과 함께 일하면서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농장에서 올해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 때에도 일군들은 농장원들속에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때에도 일군들이 농업부문의 연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었다. 그리고 선진영농방법들을 작업반장, 당세포비서, 작업반기술원, 분조장들에게 정상적으로 보급하였다.

농사차비에 힘을 넣었다.

우리 농장의 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들에서 필지별토양분석조에 기초하여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짙은 거름원천을 찾아내어 유기질비료를 지닌데보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우리 농장일군들의 위치는 언제나 농사차비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포전들이다. 녀초부터 농장의 모든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은 늘 포전에 나가 농장원

들과 함께 일하면서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농장에서 올해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 때에도 일군들은 농장원들속에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때에도 일군들이 농업부문의 연구자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격조높은 개가

조국은 이 시각도 비약하고 또 비약하고있다. 누구든 위대한 내 조국의 비약의 그 숨결을 들으려거든 이 땅 어디서나 울리는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을 들어보라. 조선은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리상과 포부를 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있으며 조선은 결집하면 한디가 아니라 천만군민의 웨침이여 거시 울려나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하루빨리 통성변영하는 불멸의 대강국을 일떠세워 위대한 민족의 존엄을 위한 사상봉에 올려세우려는 것은 우리 당의 철칙같은 의지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입니다.》

반만년 역사를 우리 인민이 그토록 넘나들던 강성대국리상향을 바로 우리 세대에 일떠세우는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자랑이다. 후날 겪을지언정 오늘을의 시대를 주욱할 때 누구나 잊지 않고 부를 노래중의 하나가 다름아닌 《돌파하라 최첨단을》일것이다. 시련의 아픔을 활활 불사르며 강성대국의 명성이 어떻게 이 땅우에 불타올랐는가를 노래는 감동깊이 전해줄것이다.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은 나라의 기계공업의 CNC화와 더불어 최첨단과학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과 비약을 일깨워나가고있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훌륭하게 반영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을 들으며

한 선진시대의 명작이다. 최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가 CNC기술의 패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이어 최첨단의 전령에 당당히 들어선것은 선진시대에 이룩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선진시대가 창조한 또 하나의 위대한 기적과 승리에 대한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노래에 반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작품은 밝고 광명한 양상을 띠고있다. 그러나 부르짖을수록 우리 가슴속에 뜨거운 눈물이 고여드는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바로 이 한편의 노래에 눈물없이서 추억할수 없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인민의 자욱자욱, 위대하신 CNC화의 력사가 력력히 새겨져있기때문이다.

주요의 노래는 오늘날 뜨겁게 새겨졌다. 한구절 부르던 순간 지니 커했던 그 시련의 광풍중에서도 기계공업의 CNC화라는 새것을 쓰러뜨리려는 악마의 손이 어찌저 어찌저 우리 장군님께서 넘고 헤쳐오신 력사의 협상중령이 안겨온다. 또 한구절 부르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제공업발전을 위해 쌓으신 업적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강성대국의 불이 바야흐로 태동하는 후날에야 알게 되었던 때 이거나 천만군민이 떠났던 떠나고 오열이 다시금 가슴에 차오른다.

정령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헌신속에 어제날의 자그마한 씨앗이 오늘은 억센 뿌리를 내리고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랐고 선군조선은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쥐고 최첨단의 전령에 당당히 들어섰음을 노래는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그렇다. 선군의 총대파편 무엇을 위해 필요했었었으며 위대한 선군시대가 조국과 인민, 력사와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를 이제는 말할 때가 왔다. 선군조선은 무적의 총대만을 버려놓지 않았다. 참으로 가요는 누구도 따를수 없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그 뿌리를 둔 위대한 리상과 포부, 백두의 배향과 담력, 필승의 신념과 강철의 지를 지니시고 온 나라의 CNC화로 조국번영의 활로를 열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에 대한 격조높은 찬가이다.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은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사상을 가장 민감하고 깊이있게 반영하고 그 정당성을 사상에 적극적으로 힘있게 확충한 가요로서 거기에 모든것의 패권을 쥐어 이 땅우에 뜨겁게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과 기상을 격조높이 파시하고있다.

...
예곡으로 심장이 불타면 정령 못할 침탄은 없으라 선군으로 백배해진 힘으로

모든것에 패권을 쥐자 CNC는 주제공업의 위력 CNC는 자력경쟁의 본래 장군님 가리키는 길파라 돌파하라 최첨단을 아 아리랑 아리랑 민족의 자존심높이 과학기술강국을 세우자 행복이 파도쳐온다

《예곡으로 심장이 불타면 정령 못할 침탄은 없으라》라는 구절은 가요의 사상적력파도 같다고 말할수 있다. 여기에 최첨단과학의 기본원리는 바로 예곡으로 불타는 심장이라는 귀중한 진리가 철학적이기 있게 반영되어있다.

이 구절을 의외보면 예곡으로 불타는 심장들이 창조한 최첨단과학의 기적들이 가슴후련히 안겨온다.

최첨단을 돌파한 선군조선의 장한 《원학가계》 개발자들과 생활공화국자들, 핵기술개발자들...

그들에게는 있는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았다. 보통상식으로 가장 민감하고 깊이있게 반영하고 그 정당성을 사상에 적극적으로 힘있게 확충한 가요로서 거기에 모든것의 패권을 쥐어 이 땅우에 뜨겁게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과 기상을 격조높이 파시하고있다.

예곡으로 심장이 불타면 정령 못할 침탄은 없으라 선군으로 백배해진 힘으로

무할 오새가 있을것인가. 우리는 결코 광활한 대지와 많은 인구, 특이한 자원으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을 세운것이 아니다.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 역시 풍부한 물질경제적조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고귀한 진리가 가요의 구절구절마다서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우리 인민의 애국심은 곧 김일성민족의 후손이라는 높은 민족적자존심이 뿌리를 둔 위대한 정신력인것으로 하여 그 힘이 무한대했었음을 가요는 온 세상에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참으로 가요는 오늘 선군조선이 일떠세우려 하는 강성대국의 밝은 앞날을 펼쳐보이며 사람들에게 크나큰 희망과 포부,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투쟁의 노래, 필승의 노래이다.

그렇다. 노래에도 있듯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우는 과학기술강국과 더불어 행복이 파도쳐오고있다. 격동적인 시대가 김일성민족의 후손들에게 더욱 분발하게 어서발려야 할 때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주제 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라고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천만군민이여,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을 더 높이 부르며 시대와 력사의 부름에 심장을 바쳐 헌신하자!
조국여,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세계를 향하여 더 힘차게 돌진하자!

정 영 화

글작품집 《빛나라 김정일장군의 나라》(9) 출판

뛰어난 창작적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글작품집 《빛나라 김정일장군의 나라》(9)를 교육과학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작품집에는 영웅강계장자산 제1중학교 학생 방철우, 평양 평명중학교 학생 리진철, 라선시 라진중학교 학생 리금화, 신의주시 근화중학교 학생 전경일, 평양북수중학교 학생 최주미를 비롯한 84명의 학생들이 창작한 350여편의 동요, 동시, 가사, 서정시, 수필, 벽시설 등이 그들의 사진과 함께 편집되어있다.

동시 《만수대 언덕》, 《대헌수님 우리 앞날 축복하시요》, 《장군님의 발자욱》, 서정시 《내 마음의 부두철성》, 단상 《장군님 오신 날》, 동시 《별처럼 빛나요》, 《어머님의 총》을 비롯한 작품들은 조국과 인민,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당의 품속에서 희망의 나뭇을 활짝 펼치고 혁명의 계승자로, 선군조선을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형상한 동시 《백두산

의 노을》, 동요 《우리 학교길》, 가사 《박사벌레요》, 벽시설 《뿌리》, 일기글 《나는 철명녀》 등도 작품집에 들어있다.

동시 《CNC성공!》, 《강성대국불보라》, 《경쟁도표 올린대요》, 《비날론 하얀 솜》, 일기글 《북한의 세화》를 비롯한 작품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고있는 조국의 벅찬 현실을 잘 반영하였다.

작품집에는 문학교원, 작가들의 평가 창작경험도 소개되어있다.

【조선중앙통신】

관 모 병 체 육 단 에서

들이 지난 시기의 성과와 경험, 교훈을 정확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선수들의 육체, 기술, 전술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에서 과학적지도를 적극 안받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술부단장 강영학동무를 비롯한 기술참모부서의 일군들은 체육단의 체육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 데대한 목표를 세우고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이들은 감독들과 기술로몬회, 협의회를 자주 진행하면서 종목별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훈련방안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고있다.

종목별 감독들은 선수들의 구체적인 특성과 세계체육발전추세에 맞게 과학적인 훈련방법들을 면밀히 연구하고있다. 한편부서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감독, 선수들의 열의에 발맞추어 후방사업과 기체보장을 따라세우기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가고있다.

체육단에서는 선수들의 훈련조건, 생활조건보장사업에 계속 큰 힘을 쏟고있다.

산중훈련기지확장공사와 잔디축구장건설을 비롯하여 체육단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기 위한 방대한 설계가 세워지고 그 준비사업이 빈틈없이 갖추어지고있다.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떨쳐갈 각오와 신념에 넘쳐 훈련과제수행에 자기의 량심을 비추어보며 훌륭한 육체기술적능력을 갖추기 위해 단강히 노력하고있다.

단장 손성호동무는 모든 감독

관 모 병 체 육 단 에서

한 불꽃같은 전투는 과학실의 연구사들속에서도 열리게 벌어지고있다.

제8차 전국체육부문 과학기술혁신경연에서 체육단에서 내놓은 측정기계가 1등을 한것은 이쪽 연구사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적인 투쟁과정에 이룩된 웅대한 결과이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실장 최경선동무와 윤금철, 조은하동무를 비롯한 과학실의 연구사들은 체육기술발전에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언제나 명심하고 세계체육과학발전에 대한 자료들을 풍부히 장악하고 개별적선수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교수훈련을 과학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한편부서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감독, 선수들의 열의에 발맞추어 후방사업과 기체보장을 따라세우기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가고있다.

체육단에서는 선수들의 훈련조건, 생활조건보장사업에 계속 큰 힘을 쏟고있다.

산중훈련기지확장공사와 잔디축구장건설을 비롯하여 체육단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기 위한 방대한 설계가 세워지고 그 준비사업이 빈틈없이 갖추어지고있다.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떨쳐갈 각오와 신념에 넘쳐 훈련과제수행에 자기의 량심을 비추어보며 훌륭한 육체기술적능력을 갖추기 위해 단강히 노력하고있다.

단장 손성호동무는 모든 감독

《성황당》 식연극과 5대혁명연극

《성황당》식연극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연극혁명방향을 철저히 관철하는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우리 조국에 새롭게 재현하는 과정에 창조된 독창적인 연극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연극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난날의 낡은 연극에 종지부를 찍고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황당》식연극을 가지게 되였습시다.》

《성황당》식연극은 내용과 형식에서 주체의 인간학의 요소를 철저히 구현하고있을뿐 아니라 창조체제와 방법에서 주체의 창작원리에 투신하여 거고있는 새형의 연극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진리를 밝혔

다는데 바로 《성황당》식연극의 혁신적의의가 있다.

《성황당》식연극은 형식에서 주체사상의 요소를 구현한 진실로 인민적인 연극이다.

《성황당》식연극형식의 특징은 구성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성황당》식연극은 고정적식화면 구성의 틀에 생활내용을 깎아맞추기 아니라 생활내용에 따라 장면을 설정하고 총체적인 구성을 세워야 한다는 데로부터 새로운 다장면구성형식을 받아들였다. 다장면구성형식은 생활을 자연스럽게 펼쳐나가고자하는 간결하게 집약하고 조화롭게 통일시켜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많은 생활을 보여줄수 있게 한다.

《성황당》식연극형식의 특징은 무대미술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성황당》식연극의 무대미술은 새로운 흐름식립체무대미술이다. 흐름식립체무대미술은 극발전에 따라 장치와 배경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다.

음악을 받아들인것은 《성황당》식연극형식의 중요한 특징이다. 《성황당》식연극에서 음악은 배여낼수 없는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성황당》식연극에서는 형식을 이루는 모든 요소의 형식적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극적형상을 살리고있다.

새로운 다장면구성형식과 흐름식립체무대미술, 특색있는 음악은 다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장소에 이바지하면서 하나로 조화되어 전일적인 《성황당》식연극의 형식을 이루고있다.

혁명연극 《성황당》과 더불어 《성황당》식연극으로 창조된 《해발만국화》, 《말에게서 온 편지》, 《3인1화》, 《경축대회》는 5대혁명연극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은교관 규정협동농장 기계화 작업반에서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당의 체육정책을 대중속에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는 한편 자체의 실정에 맞게 배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들을 아담하게 꾸려놓았다.

명절날과 휴식날들에 체육경기를 조직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도 진행하였다.

로능통신원 김 영 식

우리 나라에서의 오펍재배

죽은 예로부터 오펍을 재배하면서 음식문화를 꽃피워왔다.

오펍가운데서 신항으로 꼽는 것은 버이다. 우리 나라에서 버를 재배한 역사는 아주 오래다. 평양시 삼성구역 호남리 남경유적과 포대유적들에서 버를 비롯한 여러 집러들에서 드러난 탄화된 버알들을 과학적으로 측정된 결과 5000년 이전시기의것으로 밝혀졌다.

오펍이 드러난 포대유적의 버알 역시 지금으로부터 4500년전시기의 재배종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 인민의 버재배역사가 매우 오래

다는것을 보여준다.

풍은 버다음으로 중요한 오펍작물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 콩유물이 나타난 대적유적에서는 함경북도 회령 오펍유적이다. 이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전시기의 것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풍편유적이다. 삼성구역 남경유적, 포대유적에서도 5000년전의 콩유물이 나왔다.

우리 나라의 콩의 원산지이다. 압록강하구의 습지대들이어서 야생콩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야생콩을 우리 인민들은 인공적으로 가꾸고 오늘날의 재배종을 순화발전시켰다. 그러한 재배종들이 회령 오펍유적과 평양시 남경

유적이나 포대유적들에서 발견된것이다.

뿐만아니라 조의 재배역사도 매우 오래다. 1957년에 발굴된 함해복도 봉산군 지발리 오펍유적에서 조가 발견되었는데 그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7500년전까지 거슬러오른다. 지발리유적의 조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유물로 인정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오펍을 재배한데 대하여서는 옛 력사문헌기록을 통해서도 여실히 찾아볼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전의 일을 기록한 단군고조선 자료에는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알곡을 비롯하여 인간사회의 360여가지 일을 주관하

는 신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전해지고있다. 그리고 B. C. 3세기의 일을 기록한 동명왕(주몽)의 건국설화에서는 주몽이 부여왕자의 추격을 받아 남하할 때 그의 어머니 류화가 비둘기꿈에 보리종자를 간수하여 아들의 뒤를 쫓게 하였다고 전하고있다.

이상과 같은 자료들은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오펍을 재배한 나라이고 그 발상지라는것을 실증해 주고있다.

우리 나라의 오펍은 그 재배법과 함께 사방으로 퍼져갔다. 특히 일본열도에 오펍을 보급한것은 원시적기상대에 있던 일본을 문명세계에 이끌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장 교수 박사 조 희 승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여 러 곳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빠빠 오브스나코브 단장 루 수석지휘자가 인솔하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5일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다.

참 관

관현악단원들은 세계 자주화위업수행과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을 표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랍사를 우러러 인사로 드렸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세계 수많은 나라와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올린 선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한편 관현악단은 4일 주체사상탑과 개신문을 참관하였다.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주체사상탑 참관

개성에서 령통사-박연도로 건설이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박연도주기는 우리 나라의 3대명목중의 하나인 룡포를 비롯한 많은 자연명소들과 력사유적들이 있는 명승지이다.

새로운 도로가 완공되면 시내에서 명통사를 거쳐 박연도주기로 가는 교통조건이 보다 좋아져 참관자들의 편의를 더 잘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최근 박연도주기를 잘 꾸리고 새 도로를 건설하여 인민들이 편리하게 명승지를 찾아 휴식할수 있게 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령통사-박연도로건설 적극 추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받들고 시에서는 도로건설을 위한 단계목표를 면밀히 세우고 조직정착사업을 짜고들어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 일으켰다.

시도건설지휘부에서는 설계를 앞세우고 시공과 로력조직, 로반공사, 보장사업 등을 령통적으로 추진시키면서 공사

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건설에 떨쳐나선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은 10여개의 다리와 각종 구조물들의 위치를 확정하고 수만명의 흙

짜기와 성토공사를 해체했으며 구베낫추기와 굵은돌이끼기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그들은 자력경쟁,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압축

설비들을 산에 끌어올리고 필요한 도구들도 자체로 해결하면서 어려운 구간들의 로반정리를 마무리하고있다. 또한 막돌 및 자갈짜기와 다리, 주차장건설, 콘크리트포장준비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건설자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도로의 면모는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농업과 학 기술상식

3월 중순까지 주요남새작물비배관리대책

평양지방에서 1월 상순에 씨를 뿌려 2월 중순에 온상 배판리에서는 3월 하순까지

박막을 씌워주며 박막안의 온도는 낮에는 20~25°C, 밤에는 8~10°C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빛을 충분히 받도록 시설의 박막위에 있는 먼지를 털어주고 낮에는 박막을 벗겨주어야 한다. 물주기는 3~4일에 1번씩 20°C이상의 더운물을 맑은

날 10~12시 사이에 주어야 하며 더운물이 없는 경우에는 랑크에 물을 1~2일전 정도 잡아두었다가 충분히 주어야 한다.

겨울나이한 시금치비배관리에서는 3월 상순부터 관수를

2~3회정도, 물거름주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4월 중순에 생산할 시금치밭은 3월 초순에 평면으로 박막을 씌웠다

10~15일후에 벗겨주는것이 좋다.

가두베추비배관리에서는 2월 상순에 씨뿌리기한 모판 안의 온도를 20~22°C정도 보장하면서 3월 상순에 1m 당 물 3L에 류안 10g을 풀어

있었비로 주는것이 좋다. 1월 하순에 씨뿌리기한 고추, 도마도비배관리에서는 모가 햇지라지 않고 잎수분화가 촉진되도록 모판안의 온도를 25~30°C, 습도를 65% 정도도 보장하면서 더운물을 관수하고 파서 1%우림액이나 붕소부화염양액 100배

액, 잘 섞은 닭배설물을 100배의 물에 희석하여 주는것이 좋다.

서해안평지대와 동해안중부지대에서 3월 상순과 중순에 2개단 봄배추, 가지파작물, 파, 붕시금치씨뿌리기를 적기에 하여야 한다. 특히 가지파작물은 씨앗처리를 반드시 진행한 다음 씨를 뿌려야 한다.

평양지방에서 2월 상순에 씨뿌리기한 5월생상운동배추의 옮겨심기준비를 하여야 한다. 올해 겨울철기상조건이 덩이 깊어졌으므로 300g정도의 소씨를 뿌리고 물을 준 다음 미리 박막을 씌워주어 토양소독과 땅속이끼를 하는것이 좋다.

씨뿌리거나 영양버거를 포함한 버거우에 모판흙을 퍼지 않고 씨앗을 버거우에 직접 뿌려야 한다. 씨앗이 잘 자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낮은 온도에 견디는 힘이 약한 품종은 평상시평상도로 기를수 있도록 후리배추와 박막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씨뿌리거나 영양버거를 포함한 버거우에 모판흙을 퍼지 않고 씨앗을 버거우에 직접 뿌려야 한다. 씨앗이 잘 자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낮은 온도에 견디는 힘이 약한 품종은 평상시평상도로 기를수 있도록 후리배추와 박막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씨뿌리거나 영양버거를 포함한 버거우에 모판흙을 퍼지 않고 씨앗을 버거우에 직접 뿌려야 한다. 씨앗이 잘 자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낮은 온도에 견디는 힘이 약한 품종은 평상시평상도로 기를수 있도록 후리배추와 박막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씨뿌리거나 영양버거를 포함한 버거우에 모판흙을 퍼지 않고 씨앗을 버거우에 직접 뿌려야 한다. 씨앗이 잘 자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낮은 온도에 견디는 힘이 약한 품종은 평상시평상도로 기를수 있도록 후리배추와 박막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씨뿌리거나 영양버거를 포함한 버거우에 모판흙을 퍼지 않고 씨앗을 버거우에 직접 뿌려야 한다. 씨앗이 잘 자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낮은 온도에 견디는 힘이 약한 품종은 평상시평상도로 기를수 있도록 후리배추와 박막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씨뿌리거나 영양버거를 포함한 버거우에 모판흙을 퍼지 않고 씨앗을 버거우에 직접 뿌려야 한다. 씨앗이 잘 자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낮은 온도에 견디는 힘이 약한 품종은 평상시평상도로 기를수 있도록 후리배추와 박막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씨뿌리거나 영양버거를 포함한 버거우에 모판흙을 퍼지 않고 씨앗을 버거우에 직접 뿌려야 한다. 씨앗이 잘 자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낮은 온도에 견디는 힘이 약한 품종은 평상시평상도로 기를수 있도록 후리배추와 박막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아래 행복의 웃음꽃 피어난다. -대동강구역 룡라1동 38인민단 장정순동무의 가정에서- 김 진 명 작음

도이칠란드그리스도교민주동맹

출신 련방의회 의원일행 귀국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유르겐 클림케 도이칠란드그리스도교민주동맹 출신 련방의회 의원과 일행이 5일 귀국

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공부서 일군과 주조 도이칠란드연방공화국 립시대대사가 전송하였다.

